

#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12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13.

발 의 자 : 조계원 · 주철현 · 문금주  
서삼석 · 양부남 · 김우영  
박수현 · 이기현 · 양문석  
김문수 · 김승원 · 박지원  
권향엽 · 임미애 · 임호선  
서미화 · 정일영 · 박해철  
의원(18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, 예술인의 문화적 · 사회적 · 경제적 · 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, 최근 청년작가전 폐쇄, 가수 콘서트 대관 취소 등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침해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.

최근 문화기본법에서 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’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에서도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

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·방해 또는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5조(국가기관등의 책무) ① ~ ⑥ (생    략) <u>&lt;신   설&gt;</u>	제5조(국가기관등의 책무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자</u> <u>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</u> <u>당한 사유 없이 간섭·방해 또</u> <u>는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u>